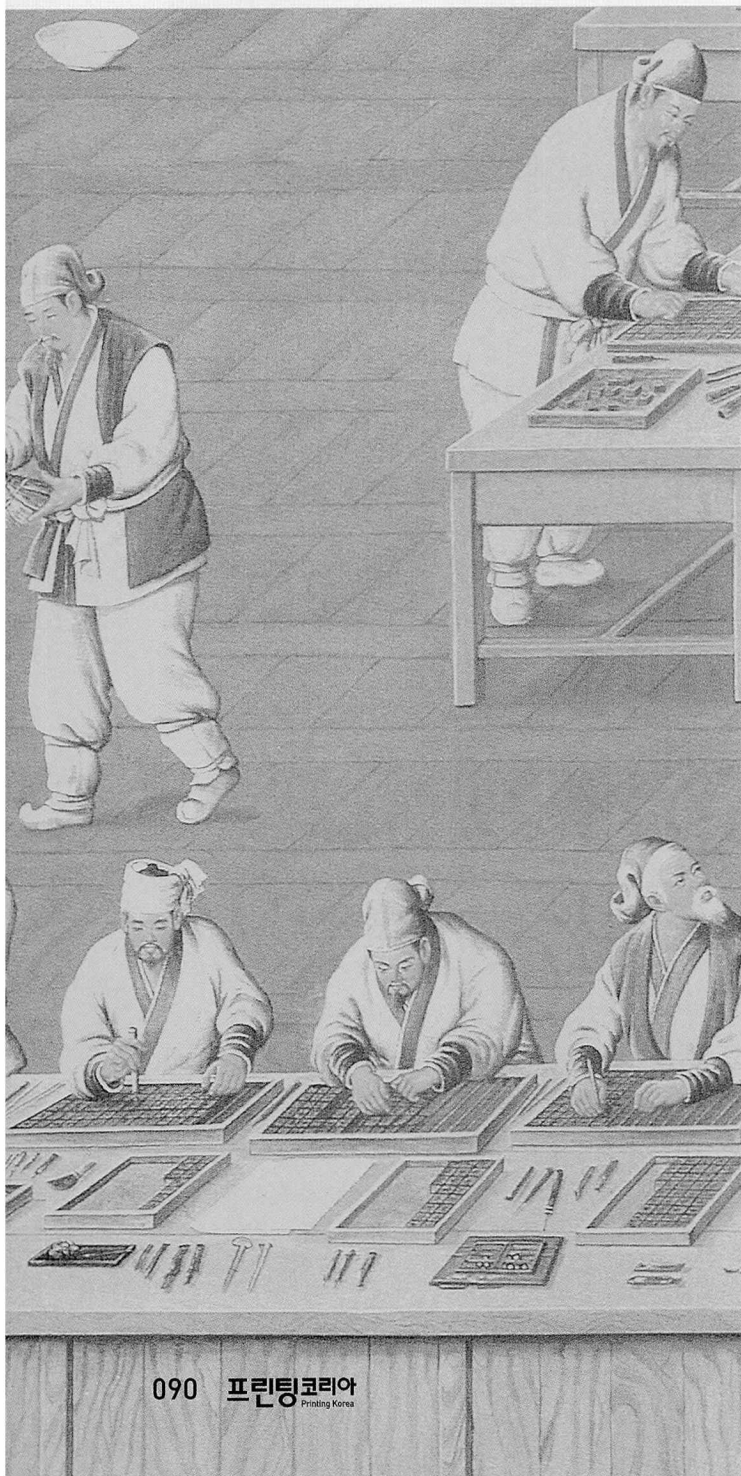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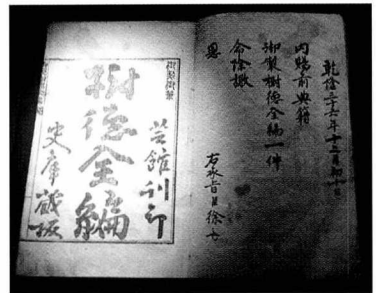
조선시대 책은 어디서 출판했을까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조선시대 책은 어디서 출판됐을까' 라는 주제로 역사관 인쇄실에서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의 내용 파악에 초점이 맞춰지던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책의 간행기록과 함께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다양한 출판기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관청이 출판 하급관청으로 보급

책은 정보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한 나라에서 책이 얼마나 출판되고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



교서관에서 출판한 책

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미 인쇄술이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인쇄, 보급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고 우리의 문화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학문과 제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문치주의를 내세운 조선은 책의 출판과 보급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활자 또는 목판을 이용하여 많은 책을 출판했다. 주로 교서관 등 출판 관련 기관을 설치하여 유교서



적, 역사책, 법전 등을 출판했으며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관청도 각각 필요한 책을 펴냈다. 즉 조선은 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중앙관청에서 책을 출판하여 관리나 하급관청에 보급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물론 지방관청에서도 독자적으로 책을 만들어 보급했다. 지방관청은 중앙에서 보내온 책을 바탕으로 번각본을 만들거나 필요한 책을 직접 인쇄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절과 서원 등에서 책이 만들어졌으며, 조선후기에는 판매를 위한 책의 출판도 활발했다.

책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 간기

조선시대에 출판된 책에는 책의 맨 앞장이나 맨 뒷장에 책이 언제 어디서 출판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때로는 오늘날의 책의 서문이나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책의 출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간기(刊記)라고 한다. 즉 책의 맨 앞장이나 맨 뒷장, 서문 발문 등에 그 책이 언제, 어디서 출판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옛 책 가운데는 사실상 이런 출판기록이 없는 책이 더 많다. 출판에 대한 기록이 없는 책의 경우에는 책의 인쇄 형태, 인쇄된 상태, 다른 관련 기록, 출판 연대가 뚜렷한 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책을 출판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는 교서관을 비롯한 중앙관청에서 출판한 중요 서적들과 지방관청 사원, 서원에서 출판한 책, 민

간에서 판매를 위해 출판한 대표적인 책들이 출품됐다. 특히 영조가 쓴 수덕전편(樹德全編)이라는 책은 영조가 직접 표지의 제목과 글씨 출판지 등을 썼으며, 책을 신하들에게 하사한 기록까지 나와 있어 책에 대한 출판 정보와 영조의 글씨를 볼 수 있는 물품이다. 또한 왕이 문치주의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물이기도 하다.

급속활자에서 목판까지 인쇄 방식 다양

조선은 1392년(태조1) 서적 출판을 담당하는 교서관(校書監: 후에 교서관으로 이름을 바꿈)을 설치하고 1403년(태종3) 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는



간경도감과 관상감에서 출판한 책의 출판기록

주자소를 설치하는 등 건국 초기부터 서적의 출판과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교서적을 비롯하여 역사, 시문, 법전 등을 출판했다.

세조 때는 불경 출판을 위해 간경도감(刊經都監)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또 외국어 통역과 번역을 담당한 사역원(司譯院), 왕실의 약 조제를 담당한 내의원(內醫院), 천문관측 등을 담당한 관상감(觀象監),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侍講院), 무기 등의 제조를 담당한 군기



교서관과 영남 감영에서 출판한 명의록

사 등 중앙의 각 전문 관청에서 필요한 책을 직접 출판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이후 한동안 교서관 대신 훈련도감에서 출판 업무를 주관하기도 했으며, 정조 때는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되어 규장각의 본원인 내각(內閣)에서도 출판을 담당했다. 중앙관청 또는 왕실에서 출판하는 책은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요가 많거나 계속 인쇄해야 할

책은 목판으로 인쇄했다. 중앙에서 인쇄한 책은 인쇄상태가 좋고, 전체 모양새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여러 차례 교정을 보아 내용 또한 매우 정확한 것이 특징. 지방관청에서는 중앙에서 보내온 책을 바탕으로 번각본(飜刻本)을 만들거나 자체 내에서 책을 인쇄하여 보급했다. 때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목판으로 책을 인쇄해서 중앙에 보내기도 했다. 지방관청의 출판 중심지는 전국 8도 감영이었지만 부·목·군·현에서도 책을 출판했다. 지방관청은 대체로 목판으로 책을 인쇄했다. 이처럼 관에서 인쇄, 출판한 책을 관판본(官板本)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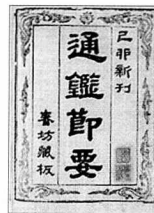
책 속에 담겨 있는 출판 간행 기록들



천선팔년 갑신세 조선국 간경도감 봉교조조
天順八年 甲申歲 朝鮮國 刊經都監 奉敎雕造

1464년(천선 8, 갑신) 조선국 간경도감에서 왕명을 받들어 새기다

불경의 하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464년 간경도감 출판



기묘신간 춘방장판
己卯新刊 春坊藏板

1879년(기묘)에 간행하고 그 목판은 춘방(시강원)에 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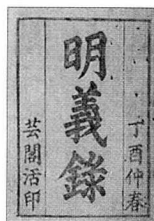
중국 역사책 '자치통감'을 간추려 엮은 '통감절요'. 1879년 시강원 출판



어제어필 수덕전편 운관간인 사고장판
御製御筆 樹德全編 芸館刊印 史庫藏板

왕이 짓고 글씨를 쓴 '수덕전편'. 운관(교서관)에서 간행하고 그 목판은 사고에 보관하다

영조가 김육이 지은 '종덕신편'을 읽고 느낀 점을 기록한 '어제수덕전편'. 1771년 교서관 출판



정유중춘 운각활인
丁酉仲春 芸閣活印

1777년(정유) 2월 운각(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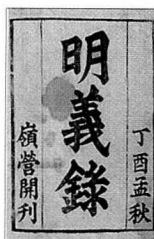
정조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명의록'. 1777년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출판



정유년하 무고인
丁酉年夏 武庫印

1717년(정유) 여름 무고(군기시의 다른 이름)에서 인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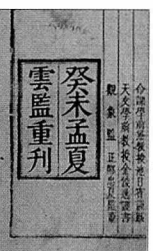
방법서 '육도직해'. 1717년 군기시 출판



정유맹추 영영개간
丁酉孟秋 嶺營開刊

1777년(정유) 7월 영남 감영에서 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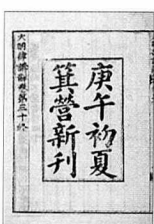
정조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명의록'. 1777년 영남 감영에서 발간



계미맹하 윤감중간
癸未孟夏 雲監重刊

계미년 4월 운감(관상감)에서 다시 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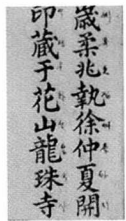
음양오행설에 따라 길흉을 가리는 방법을 기록한 '증보참찬비전천기대요'. 1763년 이후 관상감 출판



경오초하 기영신간
庚午初夏 箕營新刊

1810년(경오) 4월 평양 감영에서 간행하다

명나라 형법전 '대명률'을 해석한 '대명률강해'. 1810년 평양 감영에서 출판



절에서 출판한 책의 출판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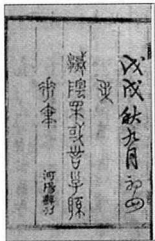
민간 출판은 절을 중심으로 활발이 이루어져

책을 출판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으므로 민간에서는 출판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 출판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곳은 절이었다. 절에서는 불경을 주로 인쇄하였지만 유명가문의 족보 등 불교서적 외의 책도 출판했다. 절에서 출판한 책은 사찰판본(寺刹板本)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문화전파의 중심지였던 서원에서조차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문집 등을 편찬했으며, 이를 서원판본(書院板本)이라고 한다. 유력한 집안에서는 개인 또는 집안에서 직접 문집이

나 족보를 출판하기도 했다.

민간에서 책을 판매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576년(선조9)에 출간된 고사촬요(故事撮要)라는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다. 여기에는 수표교 부근에 사는 하한수의 집에서 출판한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민간에서 판매용으로 인쇄한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고 하는데 중국 남송시대 이후 판매용 책을 그렇게 부른 데서 따온 것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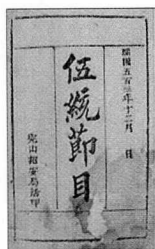
무술추기월초사 우 한음상국훈자손서 수필 하양현간
戊戌秋九月初四 右 漢陰相國訓子孫書 手筆 河陽縣刊
1598년(무술) 9월 4일, '한국상국훈자손서'를 직접 쓰고, 하양현에서 간행하다
이덕형이 후손에게 내린 훈계의 글 '한음상국훈자손서'. 1664년 이후 경상도 하양현 출판



갑오계추 옥연중간
甲午季秋 玉淵重刊

1894년(갑오) 9월 옥연정사(서애 류성룡이 나와 휴식을 하던 곳)에서 다시 간행하다

1894년 류성룡의 산문집 '서애선생문집'. 1894년 경상도 안동의 옥연정사에서 다시 출판



개국 오백삼년 십이월 일 완산 초안국활인
開國 五百三年 十二月 日 完山 招安局活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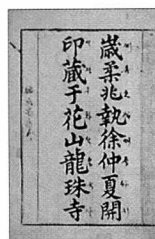
1894년(개국 503년) 12월 전라 감영 완산 초안국에서 활자로 인쇄하다
동학도의 봉기를 계기로 주민 통제수단 12개 조항을 기록한 '오통절목'. 1894년 12월 전라 감영 출판



병신추 의산서원 개판
丙申秋 義山書院 開板

1776년(병신) 가을 의산서원에서 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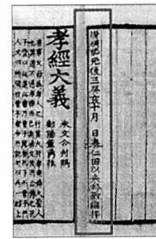
조선시대 유학자 김응조가 쓴 의례 관련 서적 '사례문답'. 1776년 경상도 영천 의산서원 출판



세유조집서증하개인 장우화산옹주사
歲柔兆執徐仲夏開印 藏于花山龍珠寺

1796년 5월 인쇄하였으며 그 목판은 화산 옹주사에 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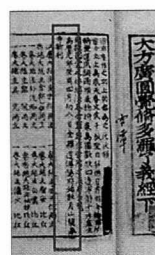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한 불경 '부모은중경'. 1796년 화산 옹주사 출판



송정기원후삼계해시월 일 태인전이채박치유재
崇禎紀元後三癸亥十月 日 泰仁田以采朴致維梓

1803년(송정 기원후 세 번째 계해) 10월 태인에서 전이채, 박치유가 간행하다

공자가 지은 '효경'의 주석서 '효경대의'. 1803년 10월 태인에서 전이채 박치유가 간행하다



만력원년 계유사월초팔일 전라도담양부지 추월산옹천사신간
萬曆元年 癸酉四月初八日 全羅道潭陽府地 秋月山龍泉寺新刊

1573년(만력1,계유) 4월 8일 전라도 담양 추월산 옹천사에서 간행하다
불경의 하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573년 전라도 담양부 추월산 옹천사 출판



세경오중춘개간 전주부하경룡장판
歲庚午仲春開刊 全州府河慶龍藏板

1810년(경오) 2월 간행하고 전주부의 하경룡이 목판을 소장하다.

'시경'을 해설한 '시전대전'. 1810년 전주부 하경룡이 판매용으로 출판